

## 哲學的 思惟의 理解

### 根源的 了解로서의 그 構造關聯(五)

金基錫

觀念論을 存在의 形而上學이라고 하면 辨證法은 정히 運動의 形而上學에도 顛落되고 있습니다. 哲學的 思惟는 오늘의 이 두 개의 觀念論에서 解放되어 存在와 運動을 어디까지던지 그 現實的인 構造에 있어서 把握理解闡明하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哲學은 現實을 思惟해야 합니다 哲學의 眞實한 對衆으로써 언제나 現實이 있을 다름입니다. 哲學은 말하자면 現實에 대한 『追思惟』의 意味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現實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現實은 무론 客觀性을 가지고 運動性을 가집니다. 現實이 主觀的인 觀念같은 것이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現實은 思惟를 否定하고 無視하고 超越하는 非合理者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하자면 思惟의 他者인 現實을 哲學은 어떻게 하여서 理解하고 省察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存在로서의 現實에 대한 事實로서의 現實이란 것을 구별합니다. 이제 存在로서의 現實을 實在, 事實로서의 現實을 運動이라고 하면 이 實在의 運動이 現實世界의 根本實體 또는 根本事實이겠습니까.

實在이 있고 運動이 있다고 해서 實在이 따로 있고 運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實在은 본래 運動에 있어서 自己를 實在로 措定하고 運動은 워낙 實在에 있어서 自己를 運動으로 開展시킵니다. 運動을 모르는 久遠한 實在이 있고 實在을 떠난 抽象的 運動이 있겠습니까. 現實의 世界는 어디까지던지 實在的=運動的 또는 運動的=實在的인 世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現實의 世界가 아모려 實在的=運動的인 世界가 된다고 해도 人間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한에서 眞實한 意味의 現實의 世界는 되지 못합니다. 現實의 世界는 그 속에서 人間이 나고 살고 또 죽는 世界가 되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客觀的 實在이 있고 거기에 具體的 運動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 主體로서의 人間이 빠졌을 때 이것은 한낱 『어두운』 自然의 世界는 될지 언정 아직 社會的, 歷史的 世界는 되지 못합니다.

社會的, 歷史的인 世界, 이것만이 勝義의 現實의 世界가 되겠습니다. 이 社會的 歷史的 世界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人間을 그 속에 가지는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위선 人間의 環境같은 意味를 가집니다. 그러나 眞實한 意味의 社會的 歷史的인 世界는 단순히 人間의 環境이 아니라, 나아가 人間과 그 環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人間과 그 環境으로서의 社會的 歷史的 世界, 哲學的 思惟는 이 現實世界的 構造를 그 根源性에 잇어서 바로 解明하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社會的 歷史的 世界가 그 基底에 實在의 世界, 運動의 世界를 가지는 것은 母口입니다. 社會는 實在의, 歷史는 運動의 한 自己限定이 아니겠습니까. 實在가 떠나고 運動이 물러날 때 社會的, 歷史的 世界는 自己를 한 개의 現實의 世界로 지탕할 길이 없게 됩니다.

實在 및 運動으로서의 現實, 이것은 哲學的 思惟의 對象이면서 겸하여 그 根源쫓아도 됩니다. 哲學은 아시다 싶이 본대 哲學的 思惟가 아니겠습니까. 哲學的 思惟란 곧 實在의 世界, 運動의 世界에 대한 根源的 省察에 지나지 않습니다. 哲學的 思惟는 마땅히 過去一切의 抽象的 論理에서 벗어나 生動하는 現實 속에 自己를 解放시키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哲學的 思惟가 現實世界에 대한 理解와 反省에 들어서면서 그는 自己를 비로소 形而上學的 思惟에서 救援하게 됩니다. 哲學的 思惟가 現實世界的 構造를 생각할 때 거기에 根源的 了解로서의 具體的 思惟가 現成 되고 이제 이것이 어느 意味의 存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哲學的 思惟는 生の 한 實現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現實에 대한 理解로부터 그 자신 한 개의 現實에 歸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完)